

사대부 묘 석인상 복식의 양식변화 요인에 관한 고찰

이 은 주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Factors relating to Changes in Costume Style of Stone Statues at Tombs of the Emerging Gentry (*Sadaebu*) in the *Joseon* Dynasty

Eun-Joo Lee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08. 2. 14, 심사(수정)일: 2008. 4. 22, 게재확정일: 2008. 7. 18)

ABSTRACT

This study reports the costume changes and the factors of the changes from stone status in *Joseon* dynasty. I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rtisan for the statu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the costume changes. The artisans who were involved in building the King's tomb were also made the stone statues for scholars' tombs. This results in that the style of the King's tomb influenced the costumes of stone statues for scholars' tombs. Some craftsmen who were buddhist monks also influenced the introduction of buddhist arts.

Second, the stone statues are classified into 3 types according to the dead's social position: the civil officer statues, the military official statues, and the servant statues are installed for the civil officer, the military officers, and others, respectively. This principle was applied well. However, the civil official statues are mainly installed in late *Joseon* dynasty because the civil officers are socially preferred to the military officers in late *Joseon* dynasty.

Third, there are two types of civil officer statues; *Gongbok* type and *Jobok* type. Civil officer statues of *Gongbok* type were mainly installed in early *Joseon* dynasty and civil officer statues of *Jobok* type were begun to be installed in the early 16th century. Civil officer statues of *Gongbok* type were fade out after the late 17th century.

Fourth, there are three reasons why civil officer statues of *Jobok* type were installed at the officers's tombs 270 years earlier than at the Kings' tombs : 1) Introduction of *Daemyunghoejeon* and its application, 2) an establishment of a system that requires to prepare *Jobok* individually, and 3) self-confidence of scholars' class on political and cultural maturity.

Key words: stone statue(石人像), civil officer statues(文人石), military official statues(武人石), funeral rites(喪禮), style(樣式), *Joseon* dynasty(조선시대)

I. 머리말

조선시대 왕릉이나 사대부 묘역의 석인상에 대한 관심은 2000년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져 역사적 관점, 미술사적 관점, 혹은 복식사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이¹⁾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석인상이 조성된 시기별로 양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양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석인상의 연대 설정이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묘주의 사망 시기²⁾나 비석의 조성시기³⁾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두 방법 모두 신뢰성에서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석인상이 묘주 사망 후 곧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늦게 조성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⁴⁾ 그리고 석인상의 조성시기를 비석의 조성시기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 역시 한계가 있는데 석인상과 비석이 함께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지만 별개의 석물이므로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개별적으로 대체, 보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묘주의 사망 시기나 제작시기의 문제 외에도 석재(石材) 조형물로서 지나는 표현상의 특수성이나 오랜 세월 동안에 깨지거나 마멸되는 석재의 특성⁵⁾ 등이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난 석인상의 양식 변화에 대한 연구는 그리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석인상의 양식 변화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복식에 대한 표현양식의 변화에 대한 비중이 큰 편이다. 사대부 묘에 세워진 석인상은 표현된 복식의 유형에 따라 문인석(文人石)⁶⁾과 무인석(武人石), 그리고 사자석(侍子石) 등으로 분류된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인석이다. 문인석은 14세기 말부터 17세기 후기까지 세워진 공복형의 문인석과 16세기 이후 출현하여 18세기 후기까지 조성되는 조복형 문인석으로 나뉘는데 왜 16세기에 조복형 문인석이라는 새로운 양식이 등장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⁷⁾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 자료와 석인상 유물들, 그리고 석인상에 대한 조사보고서와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토대로 석인상에 표현된 복식의 양식 변화요인을 석인상을 제작한 장인(匠人)의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그와 더불어 공복에서 조복으로 변화되는 문인석 복식의 유형 변화요인을 16세기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밝혀보고자 한다.

II. 조선시대 사대부 묘 석인상의 역사와 역할

1. 사대부 묘 석인상의 역사와 사치 규제

1) 사대부 묘 석인상의 역사

우리나라 능묘(陵墓)에서 문인석과 무인석을 구별하여 세우는 제도는 1372년에 완성된 공민왕릉에서 비롯되었다⁸⁾고 하는데 사대부 묘의 문부 석인상 출현은 왕릉의 것보다는 늦게 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선 석인상 유물의 조형성에 근거하여 석인상의 출현 시기와 정착 시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여말선초의 석인상은 대체로 공복형 문인석인데 몸체는 사각기둥형이고 과대한 두부(頭部)에, 단순한 선각 표현 등, 다소 치졸한 조각기법을 보이고 있다. 파주 서곡리 고려 벽화묘 석인상이나 조선 초 정희계(?-1396) 묘나 유공순(1335-1398) 묘의 문인석 역시 안면이 평면적으로 묘사되었다. 1411년에 조성된 정몽주(1337-1392) 묘의 문인석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⁹⁾ 이러한 특징을 볼 때 사대부 묘 석인상의 태동기는 대략 여말선초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조선 초 태종 10년(1410)에는 '세간에서 장사지낼 때 관곽(棺槨), 의금(衣衾), 석실(石窠), 석문(石門), 석인(石人), 석상(石床)을 세우는데, 부유한 자는 참람하기가 공후(公侯)에 비기고 가난한 자는 재력(財力)을 탕진하니 사대부의 장분제도(葬墳制度)를 정하여 사치를 금하도록 하자'¹⁰⁾는 기록이 보인다. 반세기 후인 성종 5년(1474)에도 '사대부 묘에 모두 석인(石人), 석마(石馬)를 쓰는 것이 심히 참람하니 금하는 것이 좋겠다'¹¹⁾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미 15세기 후기에는 석인을 포함한 석물의 사치를 고민하고 있었다.

18세기 후반 이후 급격하게 문인석의 조성 사례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 이유는 이규상(李奎象, 1727-1799)의 『병세재언록(并世才彥錄)』 「금평도위(錦平都尉)」편의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¹²⁾

‘영조 말년부터 사대부 묘에 석인을 세우지 않았던 것은 금평도위의 집안 일에 연유하는 것 같다. ... (금평도위의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나타나) “내가 묘 앞 제수를 받을 때면 번번이 묘 앞의 석인에게 제수를 빼앗기니 너는 빨리 석인을 넘어뜨려라.” 그래서 석인을 제거하였다. ...’

이는 신도를 지키는 석인이 간혹 세월이 지나 귀신이 되어 그 제사를 대신 받기도 한다¹³⁾는 만종재본 『어우야담(於于野談)』의 기사와도 일맥상통한다. 18세기 후기 이후 이러한 속설이 확산되면서 석인상 세우는 것을 꺼리게 됨에 따라 점차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석인상의 사치와 사치규제

사대부 묘의 석인상 사치에 대한 기사는 『태종실록』에 처음으로 보인다. 태종 1년(1401), 한 관찰사의 장모가 죽자, 지양주사(知楊州事) 김대(金澗)가 백성들을 시켜 석인과 석수(石獸)를 만들게 하고, 장례와 제사에 유밀과(油蜜果)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지양사 김대를 파직시켰다¹⁴⁾는 내용이다. 또한 성종 2년(1471)에는 경주 부윤(慶州府尹)이 죽은 첩을 위해 향리로 하여금 재(齎)를 마련하게 하고 석인과 표석을 세우게 하는 등, 폐단을 일으킴에 파직을 청한 사건¹⁵⁾도 있었다.

사치스럽고 신분에 어긋나는 참람한 현상이 자주 언급되면서 성종 5년(1474) 8월에는 대군(大君) 이하 품계별로 석인과 석상의 크기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석상(石床)과 석인의 크기를 영조척(營造尺)¹⁶⁾으로 정하였는데 대군 묘의 석인상은 길이 6척(184.8cm)으로 하고, 1품에서 2품까지는 길이 5척 5촌(169.4cm)으로, 3품에서 6품까지는 길이 5척(154cm)으로, 그리고 7품 이하와 생원(生員)·진사(進士)·유음자제(有蔭子弟)는 길이 4척 5촌(138.6cm)을 정식으로 삼게 하여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중하게 논죄하게 하였다.¹⁷⁾

『국조오례의』에는 이러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단지 4척 높이의 비석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이다.¹⁸⁾ 현존하는 15세기의 석인상이 2m가 넘는 장대한 규모¹⁹⁾임을 볼 때, 성종 5년의 규정은 효력이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성종 5년의 규정에는 서인(庶人)이 석인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종 11년(1556)에 서인(庶人)과 하천(下賤)이 표석과 석인을 세우는 것을 엄히 금한다²⁰⁾는 기사가 보이며 영조대의 기록에도 서인이 석인이나 망주석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3척이 넘는 표석을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²¹⁾는 내용이 보인다. 이 내용들을 보면 서인 묘에 석인상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규정도 잘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처럼 비석을 쓰지 말라는 유계(遺戒)를 남긴 경우도 있었으며²²⁾ 오윤겸(1559-1636)이나 유상운(1636-1707)처럼 신도비를 세울 수 있는 관직의 인물들이라도 신도비를 세우지 말라고 유언함에 따라 후손들이 간소하게 갈(碣)만 세우는 경우²³⁾도 있었다.

따라서 석물은 피장자의 신분이나 품계에 의해 결정되기도 했지만 현실적인 부(富)의 정도나 세력의 유무에 따라 세워지는 경향이 컸다.²⁴⁾ 또한 석물을 세우고 세우지 않음에는 피장자와 후손의 의지도 관여되었다고 하겠다.

2 석인상의 역할

사대부 묘에는 어떤 목적으로 석인상이 조성되었을까? 그것은 석인상의 역할과 관계되며 사대부 묘나 왕릉의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거론되어 온 석인상의 역할 또는 의미는 대략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왕릉의 경우, 국상 때의 문무백관을 형상화한 제도²⁵⁾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는 사대부 묘의 경우, 장례에 참석한 관리들의 모습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석인상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²⁶⁾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덤을 시위(侍衛)하고 악귀를 막는 벽사(辟邪)의 상징물²⁷⁾로 해석하는 경우이다.

세 견해의 타당성 여부를 석인상의 복식 유형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왕릉의 석인상이 국상 때의 문무백관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첫 번째 견해는 복식사적 관점에서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조선시대 왕릉의 석인상은 정조(正祖)의 건릉(健陵)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복형 문인석과 갑주형 무인석이다. 그러나 국상(國喪)에는 문무관이 공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최복(衰服)을 입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²⁸⁾ 그러니 국상 때의 문무관 형상이라고 하는 이 설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관리의 모습이라고 지적한 두 번째 견해 역시 수용하기 어렵다. 이 견해는 영조 때 선의왕후(宣懿王后)를 부묘함에 있어 고제(告祭)를 지낼 때 '입금은 원유관에 강사포를, 백관들은 금관에 조복을 입었다'²⁹⁾는 기록에 근거한 것인데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부묘제(祔廟祭)에 종친과 문무백관은 조복을 입고 집사(執事)는 제복을 착용³⁰⁾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사대부 묘의 부묘제 복식으로 공복이나 조복은 모두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세 번째, 석인상이 신도(神道)를 지키게 하기 위한³¹⁾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내용은 석인상 건립의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석인상에 표현된 공복과 조복의 정당성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이에 대해서는 석인상 유형에 대한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석인상 복식의 양식 변화와 변화요인

1) 석인상 복식의 양식 변화 양상

대부분의 석인상 연구에서는 문인석을 대상으로 시대별 양식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왔다. 지역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두 연구, 즉 서울·경기 지역의 문인석을 조사한 김우립(2007)의 연구³²⁾와 원주 지역의 석인상을 연구한 임영근(2006)의 연구³³⁾ 결과를 비교·정리해 보고자 한다.

서울·경기지역의 15세기 초 문인석에는 복두의

모습이 확실하게 표현되었으며 공복의 주름은 간결하게, 그리고 허리띠의 모습까지 표현되어 있다. 눈매는 장승형 눈매와 유사하고 인체비례는 아직 불안정하지만 입체감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심온(沈溫, 1365-1418) 묘의 문인석(그림 1)³⁴⁾에서 볼 수 있다. 15세기 후기는 사대부 묘역에서 석인상이 정체성을 갖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눈매도 자연스러워졌으며 인체비례도 안정적으로 표현되었다. 한편 원주 지역의 15세기 석인상은 대략적으로 시대가 올라갈수록, 그리고 묘주의 품계가 높을수록 석인상의 크기가 큰 공복형의 석인상이었는데 대체로 장승형의 눈매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16세기 서울·경기 지역의 문인석의 특징은 박원종(朴元宗, 1467-1510) 묘의 공복형 석인상(그림 2)³⁵⁾에서 볼 수 있다. 공복형의 문인석이 완성단계에 이르면서 안정적인 비례를 이루었으나 간혹 장승형 눈매도 나타났다. 그리고 공복형이 여전히 많지만 16세기 전기의 묘에서 조복형 문인석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단순한 양관에 직선적인 폐슬과 후수로 표현되었다.

최윤정(2005)의 연구에서는 이자(李籽, 1408-1533) 묘에서 처음 조복형 문인석이 확인되었다고 하였으며 김우립의 연구(2007)에서는 이사균(1471-1536)의 묘에서 처음 확인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경기도박물관(2007)의 조사에서는 정광보(鄭光輔, 1457-1524) 묘역의 조복형 문인석(그림 3)³⁶⁾이 가장 시기가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³⁷⁾ 그러나 정광보 묘역의 석인상은 장식적인 조각기법으로 보아 후대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6세기 후기에는 공복형 문인석보다 조복형 문인석의 수가 더 많아졌다. 원주에서는 1586년에 조성된 원종직(149-1564)의 묘에서 처음으로 조복형 석인상이 확인되었는데 석인상의 몸체는 사각기둥형이며 조각기법은 도식적이지만 사실적인 표현기법이 도입되었다.

17세기 전기 서울·경기지역의 묘역에서는 조복형 문인석이 공복형보다 더 많아졌으며 양관의 무 부분에도 운문(雲紋) 등이 조각되는 등, 장식적인 석인상이 나타났다. 최윤정(2005)의 연구에서는 김광찬(1597-



〈그림 1〉 심은(1365-1418)
묘 공복형 문인석



〈그림 2〉 박원종(1467-1510)
묘 공복형 문인석



〈그림 3〉 정광보(1457-1524) 묘
조복형 문인석(전·후)

1668)의 묘에서 마지막 공복형 문인석이 확인되었다.³⁸⁾ 원주에서는 원계성(1678)의 묘에서 야자대 대신 일자형 대가 묘사된 공복형 석인상이 확인됨으로써 서울·경기지역보다 늦게까지 공복형 문인석이 사용되는 지역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점차 깊이 있는 조각에 형식적이고 단순화된 얼굴 표현이 나타났으며 점차 자연스런 모습이 사라지면서 석인의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18세기에는 조복형 문인석에 다양한 장식이 나타나면서 장식적 표현이 절정에 이른다. 옷음을 머금은 얼굴, 양관의 정교한 묘사, 특히 양관의 무 부분에 나타나는 운문, 그리고 폐슬과 후수, 폐옥 등이 세밀하게 표현되었다. 18세기 후반에는 조복형 문인석만 확인되지만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단령에 달린 무(武)와 흉배(胸背), 그리고 공복에 사용된 야자대(也字帶) 등이 조복형 문인석에 혼재된 경우가 확인되었다. 원주 지역 석인상에도 조복형 석인상이 적절한 비례와 사실적 표현, 화려한 문양 장식 등의 세밀한

표현기법을 보였다.

2) 양식의 변화에 관여된 장인

석인상 복식의 표현양식 변화 요인으로는 시대적 변화요인 외에 불교적 연관설,³⁹⁾ 지역이나 가문 별 차이, 석수(石手) 개인의 역량설⁴⁰⁾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석물 조성을 주도하였던 사대부들의 역할에 주목한 경우도 있다.⁴¹⁾

석인상의 세부 표현양식의 변화에서 시대적 변화 역시 장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식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역시 장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임영애(2001)⁴²⁾는 공민왕릉의 석인상 연구를 통해 석인상을 제작한 조형 책임자 계보의 변화가 양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한 바 있다. 공민왕릉 조성을 지휘 감독하였던 김사행(金師幸, ?-1398)이 조선 건국 후 태조의 능에 관여하면서 공민왕릉 양식이 이어졌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1446년에 조성된 세종의 구(舊) 영릉에는 그와는 다른

계보의 장인인 이천(李蕝, 1376-1451)이 참여하면서 크게 다른 양식이 등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장인 개인의 조각 수준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복 제도에 대한 이해라는 관점에서 장인 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장인이 공복이나 조복 제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제작하였을 때 실제적인 복제(服制)와는 맞지 않는 석인상을 제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1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거론되는 왕실 관련 인물들 묘역의 조복형 문인석은 조각 기술이 세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복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장인에 의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조복형 석인상에 단령에 사용되었던 무(武)나 흉배가 묘사된다거나 공복에 사용되는 야자대가 표현되어 있다.⁴³⁾ 완성도 높게 조각하는 것도 장인의 역량이지만 제도에 맞는 복식을 표현하는 것 역시 장인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복식사적 관점에서 오류가 확인되는 석인상에 대해서는 당시에 제작되었기 보다는 후대에 제작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왕릉의 석물은 큰 이변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선대(先代)의 것을 전범(典範)으로 선택하여 만들어졌다. 간혹 선대에 만들어 놓았던 석물을 재활용한 경우도 있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장자 사후(死後)에 석물을 새로이 제작하는 방식을 따랐다. 예컨대 1701년 인현황후의 명릉 석물은 정종의 능인 후릉(厚陵)의 것을 전범으로 삼아 제작하였으며 1724년 경종 의릉의 석물 역시 숙종의 명릉을 전범으로 삼았다.⁴⁴⁾

왕릉 석물제작에 참여한 장인들에 대한 기록은 조선 후기의 『산릉도감의궤(山陵都監儀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각장 또는 섭장(攝匠)으로 장인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체로 서울에 거주하는 한성부 장적에 등록되어 있는 장인들이었다. 석물 조각 작업을 하기 전에 전범으로 삼을 석물을 우선 선택하게 된다. 전범이 결정되면 화원(畫員)의 견양(見樣)을 참조하여 대부석소(大浮石所)의 석수들이 석재를 떼오게 되고 준비된 석재에 화원이 밑그림을 그리면 그 밑그림에 의거하여 숙달된 조각장들이 세부를 조각하게 되는 것이다.⁴⁵⁾ 이처럼 왕릉의 석인상 양식은

전범을 참조하되, 세부적인 조각 수준이나 기법, 그리고 복식표현 등은 화원과 석공의 역량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왕릉의 경우와는 달리, 사대부 묘의 석물 제작에 참여한 장인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따라서 몇 자료에 의하여 유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 자료에 따르면 석인상 제작 방식은 기성 석물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과 사후에 새로이 제작하는 맞춤방식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즘의 석물 장만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관곽(棺槨)은 흉기(凶器)이므로 도성(都城) 안에 들이지 아니하고, 귀후서(歸厚署)도 도성 밖에 설치하는 것은 흉사(凶事)를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도성 안에서 석인과 표석을 사사로이 만들어 길거리의 저자에 두고 매매에 밀천으로 삼고 있으니,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이를 금지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따랐다.⁴⁶⁾

또 다른 기록에서는 석공에게 부탁하여 석인을 맞춤 제작한 한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김분은 경기 관찰사가 되었을 때, 조모(祖母)의 무덤 앞에 석인(石人)을 세우고자 하여, 반인(伴人)과 석공(石工)에게 말을 주어 안성(安城)에 보내어서 돌을 구하니 권상온이 객사(客舍)의 섬돌을 파내어 석인을 만들어 보냈다.⁴⁷⁾

또한 예종 1년(1469)에 정동(鄭同)이 부모와 조부모의 무덤에 새로 만들어 세운 석인(石人)과 표석(標石)이 정교하지 못함을 책하면서 다시 정교하게 만들라고 장인에게 지시하였다⁴⁸⁾는 기사 역시 15세기 장인의 존재와 더불어 석물의 제작방식을 알려준다.

왕릉 조성에 참여하였던 고급 장인은 국가적 사업이 없을 때 개인적인 석물 일을 함으로써 생계를 꾸렸을 것으로 본다면 사대부가의 석물 제작에도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가에서 지원한 왕실 관련 인물이나 대신들의 예장(禮葬)인 경우에는 왕릉 석물과 양식적인 친연성이 있을 수 있다.⁴⁹⁾ 왕릉 조성에 참여하였던 장인들이 투입됨으로써 사대부 묘 석물에도 왕릉의 석물과 같은 수준, 같은 양식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었을 것이며 그런 개연성은 왕릉

석인의 양식과 사대부 묘 석인상 양식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양식과 관련된 불교 연관설 역시 불교 자체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불교와 관련된 인력들, 즉 승려 출신의 장인들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왕릉 조성에 화승(畫僧)과 같은 승려들이 동원되어 공사에 참여하였듯이, 석물 제작에도 승려들의 참여가 있을 수 있다.⁵⁰⁾ 따라서 왕릉이나 사대부 묘 석물 조형에 자연스럽게 불교적 조형양식이 도입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사대부 묘에 조성된 동자상의 경우, 불교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음을 볼 때 더욱 그러한 추측이 가능하다.

전문 석공이든 승려이든 뛰어난 장인의 솜씨는 다른 장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 세대를 넘어 전승된다. 결국 장인들의 솜씨가 집결되어 한 시대의 양식이 완성된다고 본다면 양식 변화에는 장인이 깊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IV. 석인상의 복식 유형 변화와 변화 요인

1. 석인상의 역할에 따른 복식 유형

사대부 묘의 석인상은 묘사된 복식에 의해 세 유형으로 나뉘어 진다. 문인석(공복형·조복형)과 무인석(갑주형·군용복형), 그리고 통상예복 차림의 시사인인데 이 중에서 문인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선 초 왕릉이나 사대부 묘에는 모두 공복형 석인상이 조성되었다. 특히 태조 건원릉의 석물은 고려 말 1372년에 조성된 공민왕릉 제도를 수용한 것이므로⁵¹⁾ 석인상의 의미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공민왕릉이나 태조 건원릉의 공복형 석인상의 의미나 역할은 배릉의(拜陵儀)와 조하의(朝賀儀)의 두 관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무덤이라는 장소와 관련되는 배릉의의 복식 규정을 따른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자. 『고려사』에는 왕릉에 제사지낼 때 왕은 화포(靴袍)를 입고⁵²⁾ 백관들은 공복을 입는다⁵³⁾고 명시되어 있다. 백관의 공복 착용 규정과 석인상의 모습은 부합된다. 그러나

배릉의 상황이라면 왕릉에 왕위를 물려받은 왕의 모습도 나타나야 하는데 신하들의 모습만 보인다. 신하의 석인상만 있는 것을 볼 때, 배릉의의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두 번째, 조하의의 경우로 보는 경우이다. 고려시대에는 조하의를 비롯하여 국가 주요 의례에 백관들이 대부분 공복을 착용하였기 때문에 왕릉의 석인상은 왕에게 신하들이 조하를 드리는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 갑주를 착용하고 칼을 쥐고 있는 무인석 역시 조하의에 참여하여 왕을 시위하는 무관인 것이다. 중국에서는 후한(後漢)의 명제가 원릉(元陵)에 거행하는 조하의식을 광무제의 능인 원릉(原陵)에서 치루면서 능의 침전을 궁전양식으로 짓고 궁전 앞에 있는 것과 같은 신도를 만들면서 황제를 위해 사람 형상을 조각하여 신도 양측에 세우게 하였다⁵⁴⁾고 한다. 따라서 조선 초 태조의 건원릉이 세워질 당시(1408)에 문인석에는 고려의 복제를 이어받은 조하의 복식인 공복이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조선조 왕릉의 석인상은 생시처럼 능에 묻혀 있는 왕을 보필, 시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

그렇다면 조선 초 사대부 묘에 흔히 보이는 공복형 석인상의 경우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조선 초 공복은 초하루와 15일의 조하(朝賀)와 현사(見辭), 사은(謝恩), 복명(復命)할 때 입도록 규정되었다.⁵⁵⁾ 그 외에도 신하들끼리 치르는 의례에서 공복을 입었다. 유희춘(柳希春)의 『미암일기(眉巖日記)』⁵⁶⁾에서는 관원들끼리 인사를 나누는 공례(公禮)에 공복을 입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지봉유설(芝峰類說)』⁵⁷⁾에도 유사한 내용이 보인다.

사대부의 상(喪)에 마련되는 복완(服玩) 중에는 묘주의 평생을 상징하는 작은 크기의 공복과 화, 흙, 그리고 복두 종류가 포함되어 있다.⁵⁸⁾ 따라서 사대부 묘 석인상은 복완으로 마련된 공복을 갖춘 묘주에게 낮은 품계의 관리가 공복을 입고 공례를 갖추거나 보필하는 인물을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묘주의 생전 관직의 성격에 따라 공례를 올리는 관리들의 복식도 달랐을 것이다. 문관 출신의 묘주는 공복 차림의 하급 문관 관리에게서 예를 받았을 것이며 무

관 출신의 묘주는 감주를 입은 부하 무관의 예를, 그리고 관직이 없는 사대부는 통상예복 차림의 시자(侍者)로부터 예를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 조선 후기 오명항(吳命恒, 1673-1728)의 묘처럼 문신 묘에 무인석을 배치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오명항이 이인좌의 난(1728)을 평정하여 분무공신 1등이 되는 결정적인 공훈이 있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그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 무인석을 세운 것이라고 한다.⁵⁹⁾ 이렇듯 조성된 석인상의 유형은 묘주의 생시 관직의 성격이나 행적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전기에는 석인상 유형을 선택하는 원칙이 비교적 본래의 취지대로 적용됨에 따라 문관의 묘에는 문인석을, 무관의 묘에는 무인석을, 그 외에는 통상예복 차림의 시자상을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전기의 묘에서는 다양한 복식 유형의 석인상을 볼 수 있다.

세종대(1428)에는 사례(私禮)에서 공복을 입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대신 사모와 품대, 즉 단령을 입고 복 하였는데⁶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부 묘에는 17세기 후기까지 꾸준히 공복형의 문인석이 조성되었다. 이는 상례 전통이 변화가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후기에는 무관조차도 묘역에 조복형 문인석을 조성할 정도로 조복형 문인석이 선호되었다. 이는 조선 후기에 조선시대의 문반 선호사상이 반영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전통이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2. 문인석의 유형 변화

1) 유형의 교체 시기

석인상의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에서는 복식의 유형 변화를 양식의 범주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인석은 착용하고 있는 복식에 따라 공복형과 조복형으로 나뉜다. 공복형 문인석은 공민왕릉에서 처음 사용되었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정희계(?-1396)의 묘를 시작으로 17세기 후반까지 확인된다.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김광찬(1597-1668)의 묘에서 마지막 공복형 문인석이 확인되었으며⁶¹⁾ 원주에서는 원계성(1678)의 묘에서 확인된다⁶²⁾고 보고된 바 있다.

조복형 문인석은 16세기 이후 등장하는데 공복형 문인석과 150여 년간의 공존 시기를 거쳐 17세기 후기 이후로는 조복형 문인석만 남게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문인석에 관한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이다.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의 문인석을 대상으로 살펴본 이승해(2002)의 연구에서는 조복형 문인석이 윤여해(1546) 묘에서 처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⁶³⁾ 김우림의 연구⁶⁴⁾에서는 16세기 전기의 이사균(1471-1536) 묘에서, 그리고 최윤정(2005)의 연구에서는 이자(李紆, 1408-1533) 묘에서 첫 조복형 문인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원주 지역에서는 원종직(149-1564)의 묘에서 첫 조복형 문인석이 확인되었다.⁶⁵⁾ 조복형 문인석의 조성시기에 서울과 원주라는 지역적 차이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왕릉에서는 1800년에 조성된 정조의 능에서 유일하게 조복형 문인석이 등장하는데 사대부 묘역에서는 어떻게 16세기 전기에 벌써 조복형 문인석이 나타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1789년에 조성된 정조의 생부인 사도세자의 묘인 현릉원(顯隆園) 역시 조복형 문인석이 세워졌는데 이전부터 왕릉이 아닌 세자의 원(園)에는 사대부 묘와 마찬가지로 조복형 문인석이 조성되어 왔다. 왕릉 이외의 모든 왕실 인물들의 무덤에 조복형 문인석을 세움⁶⁶⁾으로써 능(陵)과 원(園)의 구분을 뚜렷하게 하였다.

이상의 자료에 근거하여 16세기 전기의 사대부 묘역에 조복형 문인석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면 왕릉보다는 270여 년⁶⁷⁾ 정도 앞서서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이러한 추산은 조복용 문인석의 조성이 묘주 사후에 곧 이루어졌다는 가정 하에서 가능하다.

2) 유형의 변화 원인

16세기에 석인상의 유형이 공복형에서 조복형으로 변화한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1) 『대명회전(大明會典)』의 수입과 그 영향

조선 초에는 이미 고려 말에 수용된 『가례(家禮)』가 사가(士家)의 사례(四禮) 실행함에 있어 중요한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었다. 특히 상례는 주자(朱子)의 『가례』를 따라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가례』에는 석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석물 중 석수(石獸)에 관한 언급이 간단히 있을 뿐이다.⁶⁸⁾

사대부 묘역의 문인석에 조복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명회전』에 명시되어 있는 명나라 신하 묘에 세워진 조복형 석인상 제도의 영향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6세기에 등장한 사림들은 성리학풍을 진작시키기에 앞장섰으며 그 일환으로 중국의 문화를 근원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은 곧 중국문화의 수입과 수용으로 이어졌다.

중종 13년(1518)에 수입된 『대명회전』에는 조선 왕실의 종계(宗系)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조정에서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그런 과정에서 조정이나 사대부는 『대명회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⁶⁹⁾ 그리고 국가의 오례(五禮)와 관계되는 일들을 논의할 때마다 『오례의(五禮儀)』와 함께 『대명회전』을 참조하였다. 또한 중종 31년(1536)에는 『대명회전』에서 활용할 만한 내용을 뽑아 인쇄하도록 하였다.⁷⁰⁾ 이런 과정에서 석인상을 세우는 관료층은 『대명회전』에 기술되어 있는 중국의 석인상 제도에 대해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대부 묘 석인상 제도의 변화에 있어서는 『가례』보다 『대명회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다.

『대명회전』에 의하면 명나라 황제의 수릉에 갑주차림의 장군상과 함께 조의관문상(朝衣冠文像)과 조의관무상(朝衣冠武像)을 세웠다. 게다가 공후(公侯) 이하 2품까지도 석인과 석마, 석양, 석호를 둘 씩 배치하였다.⁷¹⁾ 명나라에서는 황제와 관리들 모두 조복형 석인상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무관상조차도 조복형으로 제작하였음이 주목된다.

한편 왕릉의 석인상은 1475년의 『국조오례의』부터 1758년에 간행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⁷²⁾까지 공복형[冠帶執笏之像]과 갑주형[甲冑佩劍之像]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다. 이와는 달리, 사대부 묘의 석인상 규정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대부층은 석인상 유형의 선택 문제

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예서에 석인상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왕릉의 경우보다는 석인상 복식의 유형 변화가 수월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왕릉에서도 채택하지 않은 조복형 문인석을 먼저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조복의 사비(私備) 제도 영향

문인석이 공복형에서 조복형으로 바뀐 이유를 공복 제도의 소멸과 중종 29년의 조복제도 변화로 보는 경우⁷³⁾가 있다. 임란 이후 한동안 공복제도가 복구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⁷⁴⁾ 공복제도 뿐만 아니라 조복제도 역시 전쟁 이후 복구되지 못하였다. 효종 2년(1651)까지도 조복이 마련되지 않아 부묘의(祔廟儀)에 조복 대신 흑단령을 임시로 착용할 정도였다.⁷⁵⁾

그러나 공복제도가 소멸하여 사대부 묘역에서 공복형 문인석이 사라졌다면 왕릉에는 '왜 공복형 석인상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을까'라는 문제에 납득할만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중종대에 조복제도에 관한 논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중종 29년(1534)의 중국식 양관제도의 수용이 문인석 유형 변화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는가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종 32년(1537)에는 화(靴)를 제외하고 다시 본래의 제도로 환원⁷⁶⁾되었기 때문이다.

조복형 석인상의 등장은 조복을 장만하는 방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 초에는 조복과 공복을 제용감(濟用監)에서 제조하였다. 그리고 제용감에서 제작된 공복은 관리들이 사가(私家)에서 보관했던 반면에, 조복은 관사(官舍)에서 보관하였다.⁷⁷⁾ 공복을 개인적으로 보관하였기 때문에 사대부들이 조복보다는 공복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 초 공복형 석인상을 제작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조복을 제작하는 데는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었으므로⁷⁸⁾ 국가에서의 일괄적인 장만이 쉽지 않았다. 중종 3년(1508)에 박원종(朴元宗) 등이 북경에 다녀온 후 제복과 조복의 혜말(鞋襪)을 중국 제도로 바꾸자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제복만 제용감에서 제작하

는 공비(公備) 방식을 유지하도록 한 반면, 조복은 개인적으로 장만하도록 하는 사비(私備) 방식을 채택하였다.⁷⁹⁾ 조복을 개인적으로 장만하는 사비 제도는 국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묵재일기(默齋日記)』의 1545년 기사를 통해 조복을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무역해 온 사실⁸⁰⁾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570년의 한 기록에서는 조정의 공식적인 의례에 조복으로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조복을 가지고 있는 지인(知人)에게 빌려 입었음⁸¹⁾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사대부 묘에서 조복 유물이 간간히 출토되는 것⁸²⁾도 조복을 개인적으로 장만하는 사비제도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중국 명나라의 석인상 제도가 조복형 문인석임이 확인되었고 게다가 조복을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제도가 마련되자 공복보다 더 격식을 갖춘 조복을 석인상에 사용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물론 국가에서 이를 제지하는 규정이 없었던 것도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을 것이다. 이는 상례와 관련하여 효(孝)는 지나쳐도 문제되지 않았던 당시의 유교적 사고방식에 의해 용인될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3) 사대부 계층의 정치·사회적 성숙

중국의 제도를 인식하고 조복이 개인적으로 장만해야 하는 관복이 되었다고 해도 왕실에 앞서 사대부 계층이 먼저 조복형 문인석을 수용하였다는 것은 사대부들의 정치·문화적 역량의 성숙 등으로 얻어진 자신감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16세기 중엽에 왕릉에도 없는 조복상과 동자상이 사대부가 묘의 석인상으로 새로이 등장한 것은 사대부 나뉠의 새로운 변화 추구의 결과로서, 사대부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게 한다⁸³⁾는 견해가 설득력을 갖는다고 하겠다.

한편 1800년에 조성된 정조의 건릉은 조복형 문인석이 세워진 조선시대의 유일한 왕릉이다. 그렇다면 정조는 왜 조선의 왕릉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조복형 문인석을 왜 조성하였을까? 정조 7년(1783)에 사도세자의 존호를 올릴 때도 공주와 증실의 시호를 4자까지 쓴다는 중국제도에 근거하여 경모궁의 존호를 4자로 올렸다. 또한 경학과 주자학을

통해 유학의 정통을 계승하고 군사(君師)의 모습을 재현하고자 하였음⁸⁴⁾을 볼 때, 명나라 능침제도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일찍이 인조 6년(1628)에도 인조가 중국의 능침제도에 관심을 가졌던 사실⁸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숙종 때는 명나라의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 등, 오례를 수록한 『대명집례(大明集禮)』가 중간(重刊)되기도 하는 등⁸⁶⁾, 이러한 일련의 분위기가 정조대에 결실을 맺은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사실로 짐작하건대, 명나라 능침제도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실현함으로써 모범을 보이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정조나 사대부 계층 모두 자신의 자신감과 결단이 없었다면 새로운 제도에 도전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왕릉보다 270여 년이나 앞서 사대부 묘에 조복형 문인석이 등장하는 것은 16세기 성숙해진 사대부 계층의 정치적, 사회적 입지의 강화에 따른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석인상에 표현된 복식 양식의 변화를 유도한 다양한 요인들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장인(匠人)의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장인의 역할을 살펴보고 아울러 문인석 복식의 유형 변화 요인을 16세기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밝혀보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무 석인상을 구별하여 세우는 제도는 고려 말 공민왕릉에서 시작되었으며 사대부 묘의 문무 석인상 조성은 이보다 다소 늦은 여말선초로 확인되었다. 18세기 후기부터는 석인상이 귀신이 되어 묘주를 대신하여 제사를 받는다는 속설로 인하여 석인상 조성이 점차 감소하였다.

둘째, 성종 5년(1474)에 대군 이하 유음자제(有蔭子弟)에 이르기까지 품계별로 석인상의 크기가 규정되었으나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며 석물은 피장자의 품계나 신분보다는 현실적인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석인상은 묘주를 시위하면서 사악한 기운으

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벽사(辟邪)의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피장자의 생전 활동 내용이나 관직 종류, 또는 관직 유무에 따라 석인상의 유형이 결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석인상 제작 방식은 기성 석물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사후 제작하는 맞춤방식이 있었으며 석인상의 복식을 포함한 표현양식의 변화에는 장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왕릉 조성에 참여 하였던 장인이 사대부가의 석물 제작에 참여함에 따라 사대부 묘 석물 양식에 왕릉의 양식이 반영되기도 하였으며 승려 출신의 장인들에 의해 불교적 양식 요소도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사대부 묘 석인상은 피장자를 시위하고 보필하는 인물들을 대신하여 세워진 것이므로 문관 묘에는 문인석을, 무관 묘에는 무인석을, 그 외에는 통상예복 차림의 시자상(侍者像)을 세우는 경향이 있었다. 조선 전기에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석인상이 사용되었으나 후기에는 문반(文班) 선호사상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무관 묘에도 조복형 문인석이 조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섯째, 문인석의 유형은 공복형과 조복형으로 나뉘는데 공복형 문인석은 조선 초기 정희계(?-1396) 묘에서 시작하여 1678년 원계성 묘를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되었으며 조복형 석인상은 중종대인 1530년대에 조성된 묘에서 시작하여 18세기 후기까지 유지되었다. 석인상이 묘주의 사후에 곧 제작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볼 때, 사대부 묘역의 조복형 문인석은 왕릉의 경우보다 270여 년이나 앞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일곱째, 공복형 문인석에서 조복형 문인석으로 문인석의 유형이 변화되는 데에는 『대명회전』의 수입과 수용, 사비(私備)라는 조복 장만 방법의 변화, 그리고 정치·사회적 입지 강화로 인한 사대부 계층의 자신감과 같은 요인들이 관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조선시대 상상례 문화와 관련하여 석인상에 나타나는 복식의 표현양식과 유형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1) 경기도박물관 (2007). 경기 모제 석조 미술 上·下; 金石臨 (2007). 서울·경기지역의 朝鮮時代 士大夫 墓制研究. 高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金銀善 (2002). 朝鮮後期 陵墓 石人像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선 (2002). 시흥 卞州姜氏묘역의 異形石人에 대하여. 京畿道博物館 年報 6. pp. 67-76; 이승해 (2003).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 석인상에 대한 고찰. 고려대학교 박물관,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조사 보고서, pp. 267-342; 林英根 (2006). 原州地域 墓의 文人石 研究. 江原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崔允貞 (2005). 조선시대 金冠朝服型 文人石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碩士學位論文; 한주영 (2006). 17~18세기 문인석에 나타난 조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등.
- 2) 崔允貞 (2005). 앞의 책, p. 6.
- 3) 林英根 (2006). 앞의 책, p. 14.
- 4) 金石臨 (2007). 앞의 책, p. 127.
- 5) 權容玉 (1985). 朝鮮王朝 王陵 文人石像의 服飾形態에 관한 연구. 服飾, 4, p. 87.
- 6) 장경희 (2007a). 고종황제의 금극 홍릉 연구. 史叢, 64, p. 60. 임란 이후 명성황후의 1898년 『홍릉산릉도감의궤(洪陵山陵都監儀軌)』에 이르기까지 의궤류에서는 ‘문석인(文石人)’, ‘무석인(武石人)’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반면에 1919년 『고종태황제산릉주감의궤(高宗太皇帝山陵主監儀軌)』에서 비로소 문인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해 온 ‘문인석’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 7) 현재로서는 崔允貞(2005)의 연구가 유일하다.
- 8) 林玲愛 (2001). 앞의 책, p. 48.
- 9) 金石臨 (2007). 앞의 책, p. 130.
- 10) 太宗實錄 卷19 太宗 10年 4月 甲辰.
- 11) 成宗實錄 卷38 成宗 5年 1月 己酉.
- 12) 위의 책, pp. 51-52.
- 13) 柳夢寅 (1623). 신익철 외(2006). 어우야담(번역본). 돌베개, p. 200.
- 14) 太宗實錄 卷1 太宗1年 6月 癸酉.
- 15) 成宗實錄 卷11 成宗 2年 8月 癸亥.
- 16) 國立國樂院 (2003). 『악학궤범』의 영조척 척도환산 자료. 國樂院論文集, 15, pp. 137- 138. 조선 전기 영조척을 30.8cm로 추정하였다.
- 17) 成宗實錄 卷47 成宗 5年 9月 辛未.
- 18) 國朝五禮儀 卷8 凶禮 大夫士庶人喪儀, p. 90b.
- 19) 林英根 (2005). 앞의 책, p. 27.
- 20) 한국역사연구회 (2001). 受教輯錄. 청년사, p. 229.
- 21) 한국역사연구회·중세2분과법전연구반 (2000). 新補受教輯錄. 청년사, p. 411.
- 22) 姜敷錫 (1925). 李民樹 譯 (2000). 대동기문 상. 명문당, p. 317.
- 23) 金石臨 (2001). 앞의 책, pp. 12-13.
- 24) ①이진희 (1997). 朝鮮 前期 陵墓石物의 配置와 造形的 特性에 관한 研究. 韓國庭苑學會誌, 15(2), p. 10.

- ② 임영근 (2005). 原州地域 墓의 文人石 研究. 江原文化史研究 10, p. 26.
- 25) 仁祖實錄 卷11 仁祖 4年 2月 丙子.
- 26) 조은정 (1998). 20세기 황제릉 조각에 대한 연구. 한국근대미술사학, 6, p. 122.
- 27) 한주영 (2006). 앞의 책, p.26.
- 28) 國朝五禮儀 卷7 凶禮 成服儀 3b.
- 29) 英祖實錄 卷32 英祖 8年 8月 癸亥.
- 30) 國朝五禮儀 卷8 凶禮 祔廟儀 43a.
- 31) 柳夢寅 (1623). 앞의 책, p. 200.
- 32) 俞石臨 (2007). 앞의 책, pp. 130-136.
- 33) 林英根 (2006). 앞의 책, pp. 12-38.
- 34) 경기도박물관 (2007). 앞의 책, p. 194.
- 35) 위의 책, p. 284.
- 36) 위의 책, p. 298.
- 37) 위의 책, p. 298.
- 38) 崔允貞 (2005). 앞의 책, p. 32.
- 39) 李璟均 (1995). 朝鮮前期 陵墓 石人像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인용한 崔允貞 (2005). 앞의 책, p. 4.
- 40) 俞銀禧 (2002). 앞의 책, p. 105.
- 41) 崔允貞 (2005). 앞의 책, p. 4.
- 42) 林玲愛 (2001). 앞의 책, pp. 47-75.
- 43) 한주영 (2006). 앞의 책, p. 85, p. 58.
- 44) 위의 책, pp. 165-195.
- 45) 장경희 (2007b). 조선후기 山陵都監의 匠人 연구. 역사민속학, 25, pp. 138-196.
- 46) 成宗實錄 卷152 成宗 14年 3月 庚申.
- 47) 太宗實錄 卷35 太宗 18年 1月 丁卯.
- 48) 睿宗實錄 卷4 睿宗 1年 3月 戊申.
- 49) 이진희 (1997). 앞의 책, p. 9.
- 50) 조은정 (1998). 앞의 책, p. 82.
- 51) 林玲愛 (2001). 앞의 책, pp. 52-56.
- 52) 高麗史 卷61 拜陵儀 35b.
- 53) 高麗史 卷61 拜陵儀 47a.
- 54) 임영근 (2005). 앞의 책, p. 22.
- 55) 世祖實錄 卷17 世祖 5年 9月 丙戌.
- 56) 柳希春, 朝鮮總督府 (昭和 11年). 眉巖日記草 4 第9册 甲戌年 8月 13日, p. 473.
- 57) 李暉光 (1614). 南晚星 역 (1994). 芝峰類說 下. 乙酉文化社, p. 415.
- 58) 國朝五禮儀 卷8 凶禮 大夫士庶人喪儀, p. 81b.
- 59) 俞石臨 (2001). 앞의 책, p. 36.
- 60) 世宗實錄 卷42 世宗 10年 11月 甲子.
- 61) 崔允貞 (2005). 앞의 책, p. 32.
- 62) 林英根 (2006). 앞의 책, p. 33, p. 57.
- 63) 이승해 (2003). 앞의 책, p. 328, p. 333.
- 64) 俞石臨 (2007). 앞의 책, p. 132.
- 65) 林英根 (2006). 앞의 책, p. 57.
- 66) 한주영 (2006). 앞의 책, pp. 38-69. 영조의 사친(私親)인 숙빈 최씨(1670-1718)의 소령원(昭寧園)을 비롯하여 효장세자의 생모 정빈이씨의 綏吉園, 의소세손(懿昭世孫, 1750-1752)의 懿寧園,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씨(暎嬪李氏, ?-1764)의 綏慶園, 장헌세자의 顯降園, 문효세자(文孝世子, 1782-1786)의 孝昌園에 모두 조복형 문인석이 세워졌다.
- 67) 俞石臨 (2007). 앞의 책, p. 187. 김우림은 2007년 연구에서 이사균의 생몰년에 근거하여 260여년이라는 설을 제시한 바 있다.
- 68) 家禮 卷5 喪 14a.
- 69) 中宗實錄 卷32 中宗 13年 4月 甲午.
- 70) 中宗實錄 卷81 中宗 31年 5月 己巳.
- 71) 大明會典 卷203 工部 23, p. 2b, p. 9a-b.
- 72) 國朝喪禮補編 圖說 35a.
- 73) 崔允貞 (2005). 앞의 책, p. 26.
- 74) 李暉光 (1614). 앞의 책, p. 415.
- 75) 孝宗實錄 卷6 孝宗 2年 6月 己未.
- 76) 中宗實錄 卷85 中宗 32年 10月 甲戌.
- 77) 成宗實錄 卷10 成宗 2年 5月 庚寅.
- 78) 世宗實錄 卷59 世宗 15年 1月 甲子.
- 79) 中宗實錄 卷6 中宗 3年 9月 己酉.
- 80) 李文樾. 默齋日記 上. 國史編纂委員會, p. 183
- 81) 柳希春, 朝鮮總督府 (昭和 11年). 眉巖日記草 2 第5册 庚午年 7月 10日, p. 328.
- 82) 장정윤 (2003). 朝鮮時代 文武百官 朝服에 관한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84-94.
- 83) 이진희 (1997). 앞의 책, p. 15.
- 84) 김문식 (2007).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 p. 100, p. 458.
- 85) 仁祖實錄 卷19 仁祖 6年 9月 丙戌.
- 86) 김문식 (2004). 숙종이 중간한 『대명집례』. 문헌과해석 28, pp. 203-215.